

“가족과 함께 하는 로타리, 가족연합으로 新로타리를 만듭시다” 12월 지구 월례회의 개최, 무악올타리 위성클럽과 한양-연세 위성클럽 창립 소개

한양연세 위성클럽 창립 소개

12월 지구 월례회의가 12월 19일, 이동건 전RI장, 채희병, 윤상구 전RI이사 등을 비롯한 총재단과 지구임원, 클럽회장, 총무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얏트호텔 남산룸(1)(2)에서 개최됐다.

최진욱 사무총장의 사회와 이순동 총재의 개회 타종으로 시작된 이날 월례회의는 총재 인사말에 이어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 소개 시간으로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이 회원 영부인들 15명으로 구성하여 창립하는 무악 올타리 위성클럽 성태영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연세대 로타랙트클럽 출신31명으로 구성된 한양-연세 위성클럽 창립에 대해 한양RC 최경순 회장과 위성클럽 회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함께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관훈RC, 서울화산RC, 서울남대문RC, 서울아미RC 등 7명의 신입회원 환영식이 거행됐다.

아울러 이정수 새서울RC 회장이 3지역, 6지역 공동 봉사사업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12월 9일 개최된 자선 일일차집 결과를 소개했으며, 최진욱 사무총장이 3650지구 스마트폰 어플 소개 및 가입 안내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송년과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월례회의에 맞춰, 지구송리더인 듀오아임 김동규, 김구미 부부(서울강북RC) 회원이 축하공연의 시간을 갖고,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성탄 노래를 함께 부르며 포근한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12월 총재 메시지를 통해 “ ‘Family Together’ 란 자녀나 후배와 같이 젊은 세대에 국한된



3, 6지역 공동 봉사사업 소개하는 이정수 새서울RC회장 한양연세 위성클럽을 소개하는 최경순 한양RC 회장





12월 월례회의에서 축하공연을 펼친 듀오이임 주세페김, 김구미교 내외

것이 아니라, 예전의 OB회원, 휴면회원이 다시 클럽으로 돌아오는 것도 신입회원 영입 못지않게 중요하다” 며 “한번 로타리안이면 영원한 로타리 패밀리라는 생각으로 휴면회원의 복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로타리는 ‘나 홀로’ 가 아니라 ‘가족연합’ 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로타리를 목표로 삼자” 며 적극적인 회원증강 활동을 당부했다.

1월 월례회의는 신년 하례를 겸하여 1월 18일(목)에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며, 2월 월례회의는 로타리 창립 112주년 기념일인 2월 23일(금)에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무악 율타리 워싱턴클럽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총재단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 신입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총재단

2018 RI국제협의회(1.14~21)에 장세호 차기총재 비롯, 이동건 전RI회장,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윤상구 전RI이사 참석

장세호 차기총재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2018 RI국제협의회에 참석한다.

RI국제협의회는 전 세계 530여개 지구 차기 총재들에게 로타리에 관해 교육시키고, 지구 운영과 관리에 관한 RI회장의 전달 사항을 주지시키는 회

합이다. 우리 지구에서는 장세호 차기총재를 비롯, 이동건 前RI회장과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윤상구 前RI이사가 참석한다.



장세호 차기총재



이동건 전RI회장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윤상구 전RI이사

2016-17년도 로타리재단기부 우수클럽 표창

지난 12월 19일 월례회의에서는 로타리재단이 시상하는 클럽 표창이 진행됐다. 지난 2016-17년도 회기에 로타리재단 기부에서 회원 1인당 평균 연차기부액 1, 2, 3위 클럽인 서울중앙, 서울남산, 서울북악, 서울새문안 로타리클럽에 기념배너가 전달됐으며, 서울, 서울인터코리아, 서울문화, 서울남대문, 서울동방, 서울화산 로타리클럽 등 6개 클럽이 회원 100% 재단기부 클럽으로 로타리재단 특별배너가 전달됐다.



2016-17년도 로타리재단 기부 우수클럽 표창

(2016-17년도 회원 1인당 평균 연차기부액 우수 1, 2, 3위 클럽)

- 1위 서울중앙RC (US\$554.00)
- 2위 서울남산RC (US\$365.39)
- 3위 서울북악RC (US\$333.33)
- 3위 서울새문안RC (US\$333.33)

2016-17년도 100% RFSM 클럽 (클럽 회원 전원이 최소 25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1인당 평균 기부액이 미화 100달러 이상 클럽)

: 서울, 서울인터코리아, 서울문화, 서울남대문, 서울동방, 서울화산



고성대 전총재 (2012-13 총재, 한양RC)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1월 8일 취임식 가져, 2018년 1월부터 2년 임기

우리 지구 고성대 전총재(2012-13 총재, 한양RC)가 지난 1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로타리 역대 총재단에게 취임을 알린 고성대 신임 이사장은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에 대한 지지와 기부를 요청하고, '미래 비전' 으로 서울 용산구에 로타리 회관 신축 사업을 소개했다.

고성대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추정 고성대 전총재는 오랜 동안 테니스 동호회 멤버였던 한양RC 회원인 소강(小崗) 민관식 선생님의 추천으로 1994년 3월 한양 로타리클럽에 입회하였으며, 2004-05년도 한양RC 회장을 거쳐 2012-13년도 3650지구 총재를 역임하였다. 또한 국제로타리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4-05년도에 25만US\$(한화 3억8천만원 상당)를 로타리재단(The Rotary Foundation)에 기부하여 아치클럽프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부총액 55만달러로 AKS(2) 단계의 고액기부자다. 또, 2016년부터는 한국장학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해왔으며 2016-17년도 지구트레이너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한국로타리 와 3650지구 발전에 헌신해오고 있다.



로타리 환율 인하 안내 (2018년 1월부터 1,080원)

구 분	인하된 변경환율 (2018. 1. 1 부터)
환 율	US \$1 = 1,080원
RI 반기회비 (1인당)	US \$30 = 32,400원
로타리재단 기부금 (PHF, Polio 등)	US \$1,000 = 1,080,000원

9차 운영회의 개최, 지구대회 준비위원장에 안중원 지역대표 추대 회원증강과 기부목표 달성 위한 중간점검

우리 지구의 제9차 운영위원회의가 각 지역대표 및 지구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8일(월) 오전 7시 30분 그랜드앰버서더호텔 도라지룸에서 열렸다.

이순동 총재는 신년인사와 함께 “향후 6개월은 성과를 거두는 분기로서 각 클럽과 지역별로 목표를 중간점검하고 실적을 챙겨줄 것”을 당부하고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3월 지구대회 이전까지 지역대표님을 중심으로 더욱 분발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최진옥 사무총장은 오는 3월 29~30일 개최될 제56년차 지구대회 개요를 설명하고, 지역대표협의회 회장인 안중원 7지역대표를 대회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아울러 지역대표 및 지구 행정위원은 준비위원으로 참여키로 했고, 1월 10일 첫 준비위원회의를 열어 실무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진행했다.

이어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은 지구 회원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회원순감 9개클럽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고, 5명 이상 순증클럽인 한양, 관훈, 무악, 화산, 강북, 삼청로타리클럽을 소개한 뒤 지역별로 3월말까지 순증 목표달성에 협조해달라고 보고했다.

이순동 총재는 지난 연말 별세한 故서삼석 서울동방로타리클럽 회장 빈소에 문상했을 때 고인의 장남 서동욱 씨에게 로타리 멤버십 승계에 대해 설명해 선친의 뒤를 이어 로타리에 가입하기로 한 사례를 소개하고, 신입회원이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지 않도록 클럽 집행부가 회원 유지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신문영 지구사료위원장은 지구 사무국에 한국로타리 사료 보관공간을 마련한 것을 알리고 사료모집에 각 클럽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90세 이상 원로회원들을 인터뷰하여 증언 녹취자료를 축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 어플리케이션” 활용방안 안내, 총재월신 1월호 기사 및 광고 유치, 4월 22일 “가족나무 심기 행사”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동 총재와 이종원 지구트레이너(전 총재), 최진옥 사무총장을 비롯, 이홍수(1지역), 이시훈(2지역), 이세진(4지역), 김정균(6지역), 안중원(7지역), 송창섭(8지역), 박광호(9지역), 김중(10지역) 지역대표와 김병일 지구재무, 신문영 재정위원장(사료위원장),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 신희래 총재월신편집위원장, 박운희 사무부총장, 최승진 사무부총장 등 17명이 참석했다.